

CTN 가금현 발행인, 러브인캄코 회장 당선

12월 9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 개최



▲러브인캄코는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CTN과 교육타임즈 가금현 발행인(사진 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CTN과 교육타임즈 가금현 발행인이 실에서 열린 러브인캄코 정기총회에서 지난 12월 9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 회의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임원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현 발행인은 연임에 도전한 임영수 회

장을 이기고 신입회장으로 선출됐다. 러브인캄코는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 인재양성을 통해 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가금현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봉사단체다. 특히 이 단체는 캄보디아 오지마을인 병창에 서산마을 망고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병창학교 교실증축, 도서지원, 운동장 울타리 설치, 놀이시설 설치, 지하수 관정 지원 등을 펼쳐왔다. 또 서산시 우수봉사자 및 각 봉사단체의 국제봉사는 한서 로타리클럽과 러브인캄코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가금현 신입회장은 “창립시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고, 러브인캄코의 위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러브인캄코는 월 1구좌 5000원을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캄보디아 국제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항공료 및 체류비용은 자부담이다. /박순신 기자



▲서산시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서산시청년정책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서산시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장 김동완)는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당진청년나래타운과 서산 폰타나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산시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간 정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통해 서산시청년정책네트워크의 도약과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네트워크 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 1일차에는 당진청년나래타운으로 선진지 견학 후 서산폰타나리조트에서 회원간 화합을 다지는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 특히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 직접 준비한 ‘티클래스, 차와세상’은 회원들에게 색다른 경험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워크숍 2일차에는 2024년 성과보고와 2025년 방향 토론, 신규위원 위촉식, 팔봉산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김동완 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워크숍에 참가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서산시청년정책네트워크가 더욱 단합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두호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본 교육현장 방문 ‘교육 국제화 방안 모색’

치바과학대학 한국 유학생 격려, 초시시 다문화정책 벤치마킹 의원 전액 사비로 진행된 비공식 일정... 선진 교육시스템 연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치바과학대학과 초시시 국제교류협회를 방문해 한국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일본의 다문화 교육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과 소속 의원인 김응규, 방한일, 유성재 의원 4명의 비공식 방문으로 전액 사비로 진행됐다. 일본의 선진 교육 정책 탐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단은 먼저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치바과학대학을 찾았다. 현재 치바과학대학은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으며, 약학과에 80여 명의 한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약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정환, 이다정 학생을 만나 학업 성과를 격려했다. 두 학생은 6년 장학생으로 입학해 전제 1, 2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유성재 의원(전안5·국민의힘)은 “우리

세대에 반일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의 세대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유학생들은 “K-POP과 한국요리를 좋아하는 일본 친구들이 많으며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답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한국 유학생들의 뛰어난 학업 성취는 한일 양국의 교육 교류를 상징하는 좋은 본보기”라며, “충남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국제적 경험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우수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들은 초시시 국제교류협회를 방문해 후나쿠라 회장으로부터 일본의 다문화 정책 현황을 청취했다. 이 협회는 일본어 교실과 국제교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를 돕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초시시의 다문화 통합 정책이 인상적”이라며, “충남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시시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충남 학생들의 치바과학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통신제 고등학교’와 같은 일본의 교육시스템을 충남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며,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충남 교육의 국제화와 다문화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두호 기자

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 10주년기념식

무료나눔의 천사구제의류 및 CTN신문사와 업무협약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는 지난 17일 제10주년 기념식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용관 기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산시지부(지부장 최선아)는 지난 12월 17일 제10주년 기념식 및 무료나눔의 천사구제의류 및 CTN신문사(대표이사 가금현)와 업무협약 약식을 가졌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과 각 의원 및 사회단체장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주년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전국 인터넷신문사인 CTN 가금현 대표이사 최선아 지부장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장애인 홍보 및 복지향상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유공자 표창으로 ▲희망증서(생활지원금)는 이정데라사 ▲강수연 ▲이지연 ▲오종택 ▲고봉래 ▲천사골드벤처(회원 다수상) ▲조재관 ▲최윤미 ▲서산시시장(우수봉사자) ▲김남일 ▲허인식 ▲서산시의회 의장(재능기부) ▲김성원 ▲홍순도 ▲국회의원(후원인) ▲조각현 ▲김진광 ▲신체복중앙회장(우수봉사자) ▲강선혜 ▲신체복 도회장(착한어린이) ▲맹세호 ▲신체복 서산지부장(모범장애인) ▲박세립 ▲이민주 ▲김민정 ▲서산지부장(공무원공로표창) ▲이후근 ▲서산지부장(단체표창) ▲석림사회복지관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최선아 지부장은 “10주년 기념 및 나눔의 천사 구제 의류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어 물질적 정신적 사회 모든 영역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어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최용관 기자



서산시
SEOSAN CITY

떠나자!! 가슴 설레는 서산으로~~~ 서산 대표 관광 명소





●삼길포항



●서산한우목장



●간월암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서산해미읍성



●개암사



●팔봉산



●가야산



●황금산